

전주 관광명소 무료 와이파이 ‘팡팡’

관광공사 구축지원 공모사업에 ‘객리단길’ 선정... 내달 중 문체부 실사 통해 최종 구축장소 확정

전주시 주요 관광명소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Wi-Fi)가 설치된다.

전주시는 한국관광공사의 '2019년도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 연말까지 객리단길 일원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격차 해소와 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객리단길 일원에는 국비 504만원과 도비 588만원, 시비 1428만원, 통신사업자 부담금 1680만원 등 총 4200만

원이 투입돼 오는 12월까지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될 예정이다.

세부 구축장소는 전주객사1길·2길·3길 각각 1곳씩으로 오는 8월 중 문화체육관광부 실사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되면 인근상가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전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폭넓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누구나 편리하게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관광객 체류시간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필요한 장소를 파악해 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존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시 자체사업으로 전주한옥생태체험관과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전주향교, 감암서예관, 전주한벽문화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영화제작소, 동물원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했다.

이후 지난 2013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 남부

시장·신중암시장·모래내시장 등 전주지역 전통시장, 보건소, 도서관, 주민센터, 덕진공원, 서화동예술마을에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바 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되면 객리단길을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인터넷과 모바일기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객리단길의 매력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더욱 많이 알려져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공공 와이파이 구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미투 가해자 처벌하라” 15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관계자들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관계자들이 A대학교 B모 교수·문화예술·교육계 미투 가해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덕진공원에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 만든다

전주시-유니세프-시설관리공단, ‘맘껏 숲, 맘껏 하우스’ 조성... 공동 워크숍 개최

물놀이장과 놀이터 등 아동친화 공간을 조성 중인 전주시가 여름철 덕진공원을 아이들이 맘껏 뛰놀 공간으로 만들기 했다.

전주시는 15일 서울 문정동 스튜디오 오일공원에서 시 아동관련 부서와 공인관련 부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덕진공원에 조성되는 맘껏 숲과 맘껏 하우스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덕진공원 맘껏 숲과 맘껏 하우스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가 시민들의 휴식터인 덕진공원에 아이들이 맘껏 뛰놀며 놀 권리를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동친화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덕진공원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자 다양한 놀이와 학습, 체험

휴식이 가능한 놀이공간의 기능을 갖춘 맘껏 숲과 맘껏 하우스가 더해지게 된다.

먼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되는 맘껏 숲의 경우 미래 주역인 아동들의 활동적인 놀이가 가능한 대규모의 지형공간을 갖출 예정이다. 또, △무지개다리 △함포마당 △은행나무플랫폼 △슬라이딩 가벽 △물덤벙 등 자유로운 활동공간이 늘어설 예정이다.

또한 맘껏 하우스의 경우 맘껏 숲의 기능을 보완하는 놀이와 문화, 편의시설을 담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된다. 시는 이곳을 보다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놀이공간이자 보호자의 대기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경관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덕진공원의 장소적 특성을 담은 기본계획구상을 완료한 상태로 현재 진행중인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8월 공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준공 후에는 현장에 놀이활동가 등 관리 인력을 배치해 아동이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들의 놀이 본능을 맘껏 발산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키로 했다.

민선5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 곳곳에서 ‘야호’를 외치며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향후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덕진공원에 조성되는 아동친화공간 ‘맘껏 숲, 맘껏 하우스’가 아동의 놀 권리를 온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내일은 제헌절... ‘나라사랑 마음 드높여요’

제헌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한 태극기 달기 운동이 전개된다.

시는 오는 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시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범시민 참여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태극기 달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버스 △버스정보시스템(BIS) △공공주택 방송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태극기 게양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또,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는 국기 판매소를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태극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5일부터 제헌절 당일까지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등 시내 주요도로 30개 구간

전주시, ‘태극기 달기’ 범시민 참여운동 전개

에 4000여 기의 가로기를 게양해 태극물결을 조성, 애국심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태극기는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의 경우 제헌절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게양하면 되며 각 가정과 민간기업·단체 등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된다.

온 종일 비가 내릴 경우 심한 비·바람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게양하지 않아야 하며 국지성 호우 등 일시적 악천후일 경우에는 태극기를 내렸다가 날씨가 갠 후 다시 게양하면 된다.

오재수 전주시 총무과장은 “제헌



절은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공화정이란 국가이념을 강조하고자 헌법을 만들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라며,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관공서와 시민들이 하나 되어 제헌절 의미를 기념하고 시내 전역에 태극기 물결이 펼쳐질 수 있도록 태극기 달기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마트에서 가방 훔친 70대 검거

마트에서 물품을 포장하는 틈을 타 가방을 훔쳐 달아낸 70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7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10분경 전주시 완산구 마트에서 가방 등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물품을 포장하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훈 기자

주차장서 책장 훔친 50대 덜미

주차장에 보관중인 책장을 훔쳐 달아낸 50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 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경 완주군 도 상가 주차장에서 20만원 상당의 책장을 자신의 차에 실어 달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의회 의원들, 태권도대회 감사패 수상

김남규·김진욱·김승섭·강승원 의원, 조직위로부터

전주시의회는 김남규, 김진욱, 김승섭, 강승원 의원이 지난 13일 2019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서 조직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네 명의 의원들이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국기태권도 보급에 앞장섰으며 2019 전주오픈국제태권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후원하는 등 지역 태권도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를 수상한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참여하는 국제태권도대회가 태권도의 성지 전주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주의 태권도 발전에 힘써 태권도 성지로서 전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미세먼지 감축·난방비 절감

전주시, 올 저녹스보일러 설치 200가구에 가구당 16만원 지원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효율 높아 난방비 등 줄이는 ‘1석2조’

전주시는 시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보일러를 초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해주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저녹스보일러는 일반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79%까지 저감시킬 수 있고,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열을 흡수·재활용해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약 10% 높아 일반 보일러와 비교해 최대 28%(연간 최대 13만원)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16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아 올해 총 2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가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가구당 16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전주지역 주택 소유주와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로, 시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영구, 공공, 국민주택), 전용면적이 작은 주택, 장애인, 제조일이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현대해상 4층)에 방

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보일러(7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만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저녹스보일러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으로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총 16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현황은 매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마크인증시스템(ekcert.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저녹스보일러의 경우 응축수가 발생하는 만큼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보일러 제작사에 미리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보일러를 먼저 설치한 후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소급해 지급하지 않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 관계자는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어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책과 함께 무더위를 이겨내요’

전주시립 평화도서관, 올 여름방학 특강 수강생 모집

전주시립 평화도서관은 오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도서관에서 여름방학 내내 무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초등학교생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며 일차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동화가 살아 움직이는 도서관 △예술을 즐기는 도서관 △여행을 즐기는 도서관 △책과 친해지는 도서관 등 4가지 테마의 총 14개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 테마인 ‘동화가 살아 움직이는 도서관’의 경우 매주 토요일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형극 △풍경 △블랙라이트 공연 등이 운영된다.

또한, ‘예술을 즐기는 도서관’의 경우 예술가를 꿈꾸는 초등학교생들을 위해 서화동예술마을에서 활동중인 화가와 함께 하는 미술교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경험을 넓히는 도서관’ 테마 프로그램

은 △타일배비반침 만들기 △환경을 살리는 에코백 △항아리나 꽃병채 만들기 △꽃을 담은 디퓨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아울러, ‘책과 친해지는 도서관’은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책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 처방 프로그램과 함께 생활 속의 돈에 대해 알아보는 ‘책과 함께 경제독학’ 특강도 진행된다.

여름특강에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교생들은 16일 오전 9시부터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없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재료를 별도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19 평화도서관 여름방학특강 모집안내’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81-6428)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